

소니코리아, 소니 미디어 데이 2023 개최



소니코리아가 지난 10월 18일 상암동 중소기업 DMC 타워 DMC 홀에서 소니의 최신 방송 전문장비와 솔루션, 그리고 미래 비즈니스 방향성을 선보이는 고객 체험 행사 ‘소니 미디어 데이(Sony Media Day) 2023’을 개최했다.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소니 미디어 데이에서는 시스템 카메라를 중심으로 다양한 영상 제작 솔루션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소니 미디어 데이 2023은 라이브(Live), NWL(Networked Live), I&A(Image & Analytics), 뉴스(News) 총 4개 존으로 구분되어 운영되었다. 방송 전문 업체 및 전문가뿐 아니라 일반 소비자도 사전 신청을 통해 참가할 수 있어, 현장에서 각 테마에 맞는 발표와 함께 부스를 방문해 해당 제품 및 솔루션들을 실제로 체험해 볼 수 있었다.

세미나의 시작에 앞서 Komine Hideki 소니 프로페셔널 부문 사장과 변상혁 소니 프로페셔널 미디어 솔루션 Div. 본부장의 인사말이 진행되었다. 세미나 참석자들에 대한 감사의 의미와 미디어 데이에서 선보이는 최신 소니의 솔루션에 대한 관심을 부탁했다.

라이브 존에서는 올해 출시된 가변 ND 필터를 장착한 HDC-5500V 시스템 카메라를 비롯하여, S35mm 4K 센서 기반의 HDC-F5500, 새롭게 출시된 4K 엔트리 시스템 카메라 HXC-FZ90 등 강력한 시스템 카메라 라인업이 선보였다. HDC-5500V는 직접 4K 출력, 디지털 트라이앵스 또는 무선 작동을 지원하는 2/3인치 4K 3-CMOS 센서 휴대용 시스템 카메라로, 외부 패널 옵션을 선택하여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HDC-5500V에 설치된 가변 ND 필터를 사용하면 부드러운 조작과 정밀한 촬영, HDR 및 SDR 동시 프로덕션은 물론, 새로운 해상도로 창작의 범위를 넓힐 수 있다. HDC-F5500은 S35mm 4K CMOS 이미지 센서를 채택했으며, 베니스와 동일한 8-position ND 필터를 장착했다. 다양한 멀티 포맷 지원과 Live HDR 기능 지원이 특징이다.



멀티 포맷 휴대용 카메라 HDC-5500V



라이브솔루션 파트를 설명한 박영철 팀장



Networked Live 솔루션을 설명한 전 응 부장

특히, 써드파티 시스템 대시보드와 연동을 통해 다수의 카메라 및 다중 사이트의 라이브 제작 환경에서 카메라를 쉽게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CNA-2 카메라 제어 네트워크 어댑터가 국내 최초로 공개되었다.

NWL 존에서는 올해 해외에서 다수의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은 소규모 원격 제작용 인디코더인 NXL-ME80이 전시되었다. 초저지연 코덱을 활용해 라이브 제작 솔루션을 제공하는 NXL-ME80을 무압축 영상과의 비교 시연을 통해 초저지연 코덱의 우수성과 원격 제작의 효율성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카메라 제어 네트워크 어댑터 CNA-2



미디어 엣지 프로세서 NXL-ME80

I&A 존에는 AI 분석 엔진을 통해 PTZ 오토 프레임링 기술을 구현한 소니의 최신 네트워크 카메라 SRG-A40과 SRG-A12가 전시되었으며, 뉴스 존에서는 4K, HDR 및 HD 이미지 품질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연 PXW-Z750 4K 솔더 캠코더를 선보였다. 이 밖에 1인 및 소규모 제작자를 위한 컴팩트 풀프레임 8.6K 시네마 카메라 부라노(BURANO)를 비롯한 최신 시네마 라인업도 체험 가능했다.



컴팩트 풀프레임 8.6K 시네마 카메라 부라노(BURANO)



소니의 시네마카메라 라인을 설명 중인 김병철 차장



현장 전시존 사진



퀀텀, 한국영상자료원에 ‘스칼라(Scalar) i6000’ 공급



퀀텀코리아가 한국영상자료원에 디지털 복원 영상 데이터의 안전하고 신속한 아카이빙(원본 저장)을 위해 테이프 스토리지인 ‘스칼라(Scalar) i6000’을 공급했다고 밝혔다.

한국영상자료원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디지털시네마 데이터를 안전하게 영구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퀀텀 Scalar i6000을 도입했다. 한국영상자료원은 상암동 본원과 파주 보존센터에서 각각 전체 아카이빙하고 있으며, 특히 LTO-9 기술이 적용되어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 크게 늘어난 스칼라 i6000 스토리지를 사용하여 기존에 사용하던 LTO-5에 비해 12배 이상 높은 집적도로 모든 디지털시네마를 보존할 수 있게 되어 공간 점유율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되었다.

한국영상자료원, 국내외 영상물을 디지털 복원 및 보존하여 관계자 및 일반인들에게 제공

한국영상자료원(韓國映像資料院, Korean Film Archive)은 1974년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필름보관소를 모체로 국내외에서 제작된 영화 및 영상물 관련 주요 문헌·음향 자료를 수집하고 보존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소속된 국가 기관이다. 국내에서 제작된 영화와 시나리오, 포스터 등 영화 제작 과정에서 파생되는 주요 자료를 수집하고 영구 보존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왔으며, 보존 자료의 가치 재창출을 통해 국민 문화 정서 향상에 기여해 왔다. 한국영상자료원의 상암동 본원에는 데이터 영구 보존을 위한 보존센터와 함께, 한국 영화사를 조명하는 ‘영화 박물관’, 비디오, 도서, 영화 각본, 논문 등을 열람할 수 있는 ‘영상도서관’, 자체 상영관인 ‘시네마테크 KOFA’ 등이 있으며, 파주에는 보존센터가 있다. 또한, 디지털 영상 데이터의 활용 및 안전 관리를 위해 상암동 본원과 파주보존센터에 각각 전산시스템을 두고 상호 아카이빙 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데이터의 안전한 장기보관 및 신속한 아카이빙으로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나서

한국영상자료원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영상 데이터들을 디지털 파일로 변환하여 장기간 안전하게 보관 및 관리하고, 필요 시에 신속하게 확인하여 사용할 수 있는 테이프 기반의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특히 기존에 2K 해상도로 촬영된 영화를 저장할 위해 사용해왔던 아카이빙(원본 저장) 스토리지를 최근 일반화된 4K 고해상도 대용량 영상 콘텐츠 저장에 적합하도록 용량 증설이 절실했다. 일반적으로 2K 해상도로 촬영된 영화 한편의 저장을 위해서는 보통 15만 개의 DPX(Digital Picture Exchange) 포맷의 파일로 구성되어 있어 일반적으로 1편당 1.5TB 정도의 용량이지만, 최근 늘어나고 있는 4K 고해상도의 영상은 그에 비해 4배 이상의 용량이 필요하다.

이에 고용량의 테이프 기반 아카이빙 스토리지 도입에 나섰으며, 향후 드라이브와 슬롯, 미디어 추가 증설이 용이하고, 사용 편리성은 물론, 빠른 아카이빙, 데이터를 장기간 보관할 수 있는 안전성 등 다양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한국영상자료원은 최종적으로 이미 기존에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어, 그 성능과 안전성을 검증 받은 장기 데이터 보관을 위한 LTO-9(개방 선형 테이프, Linear Tape-Open) 기술 기반의 엔터프라이즈급 테이프 스토리지인 ‘퀀텀 스칼라(Scalar) i6000’을 퀀텀의 파트너사인 넷컴솔루션을 통해 도입하였다. 특히, 퀀텀의 스칼라(Scalar) i6000은 향후 늘어



퀀텀 스칼라 i6000

나는 데이터량에 맞춰 드라이브와 슬롯을 쉽게 추가할 수 있도록 높은 확장성을 제공하고, 사용이 편리하며, 장애 발생 시에 빠른 기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데이터의 영구 보존을 위한 최적의 스토리지 솔루션으로 평가받았다.

퀀텀 Scalar i6000, 안정적인 영상 원본 저장과 확장 용이성, 관리 편의성 제공

한국영상자료원은 기존에도 스칼라 i6000으로 아카이빙 시스템을 운영해 왔으며, 이번에 최신 LTO-9 기술이 적용되어 동일 면적에 더 많은 용량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스칼라(Scalar) i6000 테이프 스토리지를 도입하여 총 20PB(20,000TB) 규모의 아카이빙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처럼 대용량의 아카이빙 스토리지를 구비함으로써, 디지털 파일로 전환한 영상물을 더 이상 쪼개어 소산하여 저장하지 않고 단일 인프라에 영구적이면서도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영상자료원이 이번에 도입한 LTO-9 기반 스칼라 i6000 테이프 스토리지는 18TB의 기본 용량과 최대 45TB의 압축 용량을 지원하며, 최대 초당 400MB/sec의 전송속도를 제공한다.

실제로 한국영상자료원은 스칼라(Scalar) i6000을 도입하여 상암동 본원과 파주센터에 현재까지 저장된 약 12PB(12,000TB)의 디지털 시네마 콘텐츠를 전체 아카이빙하여 보존하고 있고 이 데이터는 지금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스칼라(Scalar) i6000은 라이브러리 한대에 최대 12,006 슬롯까지 확장하여 지속적인 데이터 증가를 수용할 수 있다. 또한 데이터 수명관리 기능인 EDLM(Extended Data Life Management)을 사용하여, 데이터에 오류가 있거나 문제가 있는지를 체크하여 장애를 예방할 수 있는 기능도 갖추고 있다. 또한 시스템 모니터링을 지원하는 iLayer 소프트웨어가 탑재되어 있어 진단 서비스, 라이브러리 리소스 관리, 라이브러리 내부 I/O 관리 기능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기존의 많은 테이프들을 일일이 확인하고 내용물들을 점검해야 하는 수고를 덜어줘 관리의 편의성을 크게 높였다. 퀀텀 Scalar i6000은 시스템에 익숙지 않은 관리자들도 별도로 사용법을 교육받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간편한 UI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 업무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게 되었다.

영상 데이터 증가에 맞춰 추가 도입 계획

한국영상자료원은 향후 보존해야 할 영상 데이터의 증가에 맞춰 아카이브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추가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데이터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데이터를 소산(분산 저장)하는 것도 계획하고 있다.